범부도 정토에 날수 있다

중생이 부처되는 수행법 16관 제시

信·行 어우러져 행복 찾는길 전개

관무량수경 ㊦

경전 속의 禪 사상 36

글쓴이

강동균

(동아대 철학과 교수)

불교의 실천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信)의 입장과 행(行)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본다. 양자는 대조적이지만 상호연관적(相互聯關的)인 관계에 있으며, 모두가 다 깨달음의 실현을 위한 불교의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관경(觀經)〉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도로서의 십육관(十六觀)을 살피도록 하자. 〈관경〉의 십육관은 인도 불교에 있어서 행(行)의 실천 수행법을 기틀로 삼았으며, 그것이 신(信)으로서 정토교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 관법은 관불(觀佛)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정토왕생을 성취한다는 입장에서 견불(見佛)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처와 중생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견불(見佛)은 신불(信佛)이며 신불은 견불이다. 〈관경〉에서는 일관되게 견불(見佛) 견토(見土)가 설해져 있으며, 견불은 아미타불에 의한 견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관경〉은 바로 '행'과 '신'이 어우러진 대승불교적 전개인 것이다.

〈관경〉의 관법은 십육관(十六觀)이다. 일상관(日想觀)으로부터 잡상관(雜想觀)에 이르는 십삼 종의 관법을 선도(善導)는 정선관(定善觀)이라고 보았으며, 다음의 상중하(上中下)의 삼배관(三輩觀)을 산선관(散善觀)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관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결론은 바로 이 산선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도가 〈관경〉을 통해서 내세우고자 한 사상은, 범부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제하시고자 하는 중생은, 언제나 미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며, 결코 성자(聖者)가 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아미타불의 이루고자 한 것-본원(本願)-은 어디까지나 미혹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는 무력한 범부에 대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극락 정토도 미혹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려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미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진실한 세계-보토(報土)인 것이다.

중국에서도 정영사 혜원이나 가상사 길장 등의 여러 사람들은 극락정토를 방편의 세계로 보고 화신(化身)이 머무는 화토(化土)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란대사나 도작선사, 선도대사, 그리고 신라의 원효대사 등은 모두가 극락정토를 보신(報身)이 머물러 계신 보토(報土)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극락왕생이 가능하며,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진실보토(眞實報土)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행복이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 되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불평불만이며, 채워질 수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시샘하고, 저 멀리 행복이 있을 것으로 알고 미래에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없이 몸부림쳐 보지만,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내가 못다 이룬 행복을 꼭 성취하여라 하고 의탁하고서 끝난다. 이렇게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행복추구를 거듭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한다.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지만, 나 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더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소 불평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달래며 납득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행복을 자처하더라도 달래고 납득시키는 한,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도, 용수도, 세친도, 담란도, 도작도, 원효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진실한 행복을 찾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끝내는 찾았던 것이다. 〈관무량수경〉은 그런 행복을 중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설해진 경전인 것이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⑰

말(馬)의 웃음 ②

참고 견뎌내는 공부,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애와 망집, 들뜬 마음 따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일단 깨닫기만 하는 날이면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는 최신식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만일 깨달을 수가 없다면 틀림없이 그 때는 크게 실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부처님의 지혜는 교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혜이다. 오히려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면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유별나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핵 물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철학자가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다. 붓다의 지혜는 대단히 겸허한 것인 바, 모든 생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나 정신에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조건지워진 것임을 알며 이 조건 역시 생기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쯤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라 말했는데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을 안다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일일까? 우리들

있는 그대로 보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

조건에 끄달리지 않을때 평화 얻어

은 응당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른다. "나는 절대자인 신이랄까 법이랄까. 얼마나 기막히게 재미나는 일인가. 그것이야말로 온통 축복이요 황홀한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경지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 주는 재미는 마치 이 방 안의 공간과 같은 것이다. 거기엔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기에 공간을 깨달으려면 방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붙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조건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만두어도 사라져 간다. 따라서 구태여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물을 제 갈 데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유롭고 참을성 있고 버틸 힘이 강해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무지한 마음이 벌이는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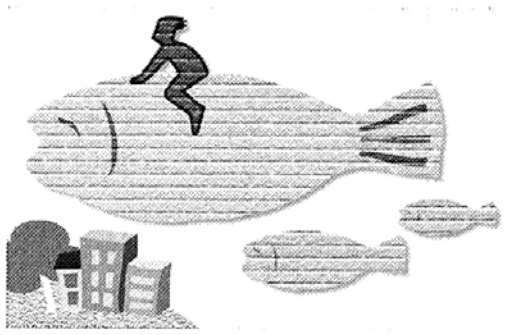
그러면 아무리 못 견딜 것 같던 일도 참을성으로 대하면 견딜만하게 된다. 남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 그것에서 굳이 잘못된 면만 찾아내려 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인데 하고 고집부리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은 제 나름으로 갈 길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럴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세상을 참고 수용하는 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좋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내 말은 자신의 혼란을 실체로 인정해주어 그렇지 않아도 혼란투성이인 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과 혼란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오종욱기자〉

과학산책

통일장 이론

표면상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근원적으로 평등과 통합



우리 불자는 계속해서 분별심을 쉬는 생활수행을 하고 있다. 분별심은 차이만을 보고 같은 점을 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분명 인간과 다른 생물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관점인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보다는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음에 근거하여 표면적인 차이는 기능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높게 볼 것도 낮게 볼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심을 쉰다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기능상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통합된 관점에 근거하여 사물 혹은 관계를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평등심을 키우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더욱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통합된다는 진리는 현대 물리학의 성공적인 발전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대통일 이론에 이르는 통일장 이론의 역사를 살펴본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간단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 해왔다.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양, 태극이론으로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설명했다. 서양에서는 뉴톤에 의해 우주의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지상에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유인력에 의해 천상과 지상이라는 두 세상에 작용하는 인력이 통합되었다. 또한 맥스웰은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자신의 전자기 이론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장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후 헤르쯔에 의해 전파의 존재가 실험으로 증명되었으며 맥스웰의 이론에서 예견된 것 처럼 전파와 빛은 단지 주파수가 다른 같은 전자기파라는 것이 밝혀졌다.

20세기 들어 물리학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발전을 계속하여 양자장이론을 낳았다. 이 양자장이론은 상대성이론이 적용된 양자이론으로 기본입자 물리에 현대적 틀을 만들었으며 서양과학 역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성공적인 이론이 되었다. 파이만은 1949년에 처음으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하였고 이 공로로 동료와 함께 196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 이론은 양자전기역학(quantum electrodynamics)이라고 불리는데 약력이나 핵력 및 중력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빛 알갱이인 광자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전자 상호간의 힘을 광자의 교환으로 설명하는 전자기력의 양자장 이론인데 놀랄만큼 정확하고 이해가 잘 되는 이론이다. 좀더 보편화해서 말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 입자에 의해 방출되고 다른 입자에 의해 흡수되는 가상광자(virtual photon)의 교환으로 본다. 광자가 가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모든 힘들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

1960년대 후반에 그라쇼, 사렘, 와인버그 등은 전자기력과 약력을 통합하는 이론인 약한 전자기 이론(Electroweak theory)을 제안하였으며 그 공로로 1979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4년 후인 1983년 이 이론이 예견한 W와 Z 보존이 유럽의 입자가속기 실험소에서 발견되었다.

이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 표준모델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들을 통합하는 이 표준모델은 약한 전자기력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는 대통일이론을 증명하기에는 아직 실험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가장 타당성 있는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이 표준모델에 근거하여 단지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경입자)으로, 관찰되어지는 모든 물질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4개의 힘을 전달하는 입자만으로, 관찰되어지는 모든 힘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원희 본사전략정보실장〉

이제 자연식품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약사보살님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이 건강한 정토를 기원하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를 흐르는 기가 조화를 잘 이룰 때를 말합니다. 기의 조화가 깨지거나, 기가 부족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해와 경쟁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에서는 무공해 자연재료를 가지고 선조들로 부터 전래된 비법으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의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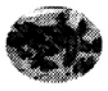
본사생산제품 : 불로화정, 원기대보탕, 익수영진고, 보혈청신탕, 치신왕기환, 신비환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참 다슬기 엑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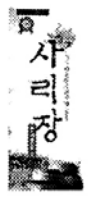


무공해 청정 지역인 지리산 뱀사골, 백무동에서 채취한 자연산 참다슬기(민물고동)를 달여서 만든 엑기스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으로 소화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참 다슬기 환(丸)

소화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가가 탁월한 지리산 참다슬기(민물고동)를 환(알약)으로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내용량 : 500g(2개월분)
◇가 격 : 30만원

유황오리 죽염간장



서목태유황오리죽염간장 사리장은 서목태콩을 우리밀누룩과 전래의 기술로 띄워서 유황오리와 발마늘, 홍화씨를 달인물을 죽염과 숙성, 발호시킨 무공해 간장입니다.
◇내용량 : 36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혼합솔순식초

햇솔순과 솔잎을 벌꿀, 벌집 등과 함께 오랫동안 발효 숙성시켜 부드러운 맛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든 고기능성 솔순식초 건강음료입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30만원

무우엿 청

무공해 무우, 찹쌀, 생강, 마늘 등을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 옛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고아 만든 최상의 상품입니다. 무우엿 청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내용량 : 500ml(2개월분)
◇가 격 : 20만원

무우엿 환(丸)

옛부터 매일마다 무우 한조각을 먹으면 산삼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무우엿 청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내용량 : 250g(2개월분)
◇가 격 : 20만원

솔효소정액

솔잎, 솔순, 솔씨방 등 지리산 조선 소나무 12가지 원료에 당귀, 감초, 표고버섯 등을 배합 발효시킨 효소정액으로 고단위 영양소가 함유되어 자연 치유의 힘을 길러준다. 기적의 솔 종합영양 강장식품으로 질병예방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내용량 : 2800ml(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솔선식

곡식종류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솔효소정액과 같이 소나무의 12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다. 밥을 먹지않고 3개월만 복용하여 비만체형이 바뀌고 당뇨를 포함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특월한 효과가 있다.
◇내용량 : 환약(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한방식초

검은 쌀밥에 농주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누릅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내용량 : 180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치료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요통, 신경통, 당뇨병, 위장병 등 각종 질병을 치유

◆가격 : 20만원(1 Set)-압축쑥 1개월분, 쑥뜸기 일체, 안내책자 포함.